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재열



'2012 세계엑스포' 여수 유치의 감동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한 청사진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근교 권역시 혁신도시 건설과 레저휴양 사업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장흥, 강진, 보성 등 전남 중부권의 경우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지 오래다.

성장 동력 잃은 중부권

전남 서부권도 조선산업 활성화로 목포항이 개항 110년 만에 1천만 물동량 시대를 여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인구는 전남 도민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에 육박한다.

개발 비전도 신통치 않다. 천연자원 연구개발을 조성하고 친환경 생명산업과 역사문화 및 생태관광 육성을 통해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소득증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전남 중부권의 미래

개발 공약에서도 중부권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들다.

중부권 지자체들이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였던 495만㎡ 규모의 중부산단 조성도 당초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장흥과 강진, 보성 등 중부권 지자체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자구노력 병행돼야

강진과 장흥군은 이미 탐진강 보존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여수엑스포 유치가 지난 1997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뭉친 3여(麗) 통합이 토대가 됐다.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시설

전남 지자체 공무원 공채보다 특채 많다

최근 5년간 전남도내 일선 시·군이 채용한 공무원은 공채보다 특채로 임용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특히 일부 시·군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 특채 비율이 60~70%를 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물론 연구직이나 기술직 등 특정분야에서는 특채가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의 지나친 공무원 특채는 자체를 만든다.

고물가에 가계빚 최대 서민 허리 한다

서민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살림살이를 옥죄고 있다.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채를 합한 가계빚은 610조6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빚 증가는 잇단 금리 인상과 함께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5% 올랐다.

경제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기고



송민석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주말, 가끔씩 시골에 계시는 팔촌이 넓은 어머니 곁에 가서 하루 밤이라도 자고 오는 날은 마음이 더없이 편하고 푸근해진다.

그런데 요즘 자녀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면서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함께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독을 달래야하는 노인세대의 피담 여린 노력이 산물이 아니던가.

그러나 요즘 자녀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다.

오승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 정서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렇지만 평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지도층부터 줄

함께하는 복지사회, 불우이웃에 온정

될 수도 있다.

19세기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스펜서는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든다."고 했다.

물론,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선수범하여 나누고 돕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참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웃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걸쳐나 행사에 치중하여 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우이웃은 겨울에만 힘든 것이 아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국장>

여론조사, 국민여론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때 회사에서 근무중에 전화를 한통 받았다.

많은 국민들이 전화를 받았을걸로 안다.

그뿐 아니라, 최근의 모든 국가 정책 사회적 이슈가 있을때 국민들의 시각과 네티즌들의 동향 각종 자료를 연구할 때 중요 데이터로 활용하는게 바로 여론조사 결과이다.

그만큼 여론이 중요한데 그것이 오남용되고 여론이 조작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 문제다.

정치권의 경선에선 1% 차이라도 표토 환산되고 있다.

또 표의 등가성 문제도 적잖다.

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되게 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無等鼓

초고유가시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시인 안도현의 '연탄 한 장'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가슴을 따듯한 정감으로 대위준다.

10여년 전만 해도 모든 가난한 집으로 배달돼 추위를 녹여주고 외로움을 떨쳐주는 것이 연탄이었다.

모든 가난한 집으로 배달돼 추위를 녹여주고 외로움을 떨쳐주는 것이 연탄이었다.

등 연탄불에 열린 추억도 많다.

추억속에서만 있는 것 같은 연탄이 아직도 전국 20만 가구에서 율동연료로 쓰이고 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연탄조차 풍족하게 쓸 수 없으니 속이 상할 노릇이다.

연탄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numbers, website, and subscription rates.

중국산 백삼 '국산 둔갑'... 원산지 표시 의무화해야

백삼을 갖고 농가소득을 올렸던 농민들이 값싼 중국산 백삼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4년 곡삼 50편을 기준으로 300g에 3만5천원 정도의 값을 받던 백삼이 중국산 때문에 2만~2만3천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팔거나 섞어 파는 사람들로 인해 판로가 막히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는 실정이다.

백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중국에서 보파리산까지 값싸고 질 낮은 중국산 백삼을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다고 하니 백삼의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해서도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은규·광양시 황길동

▲나은성·광주시 남구 봉선동